

이정효의 ‘패배 기억 사진’, 광주FC 반전 계기 될까

전북전 패배 후 라커룸 단체 촬영
25일 인천서 분위기 반전 목표
23일간 6경기 후 6일 간격 경기
승리 시 파이널A권 재진입 성공
상대 역습 대비 수비 조직 중요



“사진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
지 한 번 보자고.”

전북현대모터스에 충격패를 당한 광주FC가 이정효 감독의 ‘충격 요법’과 함께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7위로 떨어지며 파이널A권(6위 이내)에서 밀려난 광주 선수단은 이번 인천전 승리로 재도약을 노린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달 27일부터 23일간 6경기의 강행군을 치른 뒤 모처럼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원정길에 오르는 이정효호다.

광주는 지난 19일 전북과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3 충격패를 당했다. 타이틀한 일정 속 3일 휴식 후 경기에 나서면서 7일 간격으로 실전을 치른 상대의 체력 우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상대의 역습에 크게 고전했다. 역습을 막던 과정에서 허용한 페널티킥으로



광주FC가 오는 25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패배한 뒤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반 27분 송민규에 선제 실점했고, 전반 31분에도 역습 상황에서 문선민의 패스를 받은 전병관에게 득점을 허용했다. 또 후반 1분 만에 전병관에게 추가 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이정효 감독은 완패 후 충격 요법을 꺼내들었다.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수단이 모여 있는 라커룸에 돌아간 뒤 마무리 미팅 대

신 단체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당연히 선수단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이 감독은 단체 사진을 촬영한 직후 “뭘 해도 안되는 날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축구는 골 넣는 경기이고 골 안 먹는 경기인데 그 두 가지를 다 못했다. 두 가지를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내 “내 잘못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큰 잘못이다”며 “우리가 사진을 찍고 얼굴 표정과 어떤 마음 인지를 보고 싶었다.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분을 못 이기는 건지, 남은 시즌이 기대가 되는지 안되는지 사진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확인하자”고 메시지를 던졌다.

광주 선수단은 전북전 직후 외박으로 휴식을 취한 뒤 미팅 자리에서 이 사진을

함께 확인하며 패배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정효 감독의 메신저 프로필 역시 이 사진으로 바뀌었다. 감독으로서도 이날의 교훈을 새기겠다는 의지다.

의지를 다진 광주 선수단은 인천을 상대로 오직 승리만 생각한다. 올 시즌 5승 8패(승점 15·득점 21)로 7위에 위치한 광주는 인천에 승리할 경우 파이널A권 재진입에 성공한다.

광주는 인천을 만나면 접전을 펼쳐 왔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세를 점했지만 통산 전적은 7승 14무 8패로 근소하게 뒤져 있고, 지난해에는 1승 2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한 휴식으로 충전한 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일 구상이다. 최전방에서는 이견희의 머리와 발끝이 날카롭고 측면에서는 엄지성과 가브리엘, 문민서, 정지용의 파괴력이 돋보인다.

상대 역습을 대비한 수비 조직력 강화도 중요하다. 제르소가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로 결정하지만 박승호와 김보섭, 최우진, 홍시후 등 수비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변준수와 포포비치, 허을, 김경재 등의 탄탄한 수비가 절실하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42일만 실전’ 이의리, 1군 복귀 문제없다 ‘자격정지 1년’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법적 소송

22일 퓨처스 삼성전 2이닝 1실점
총 50구 소화… 직구 최고 151km

KIA타이거즈 ‘좌완 파이어볼러’ 이의리의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좌측 주관절 골괴근 염좌로 전력에서 이탈한 뒤 첫 실전 등판에서 직구 최고 구속 151km를 찍었다.

이의리는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시즌 5차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을 허용하며 1실점을 기록했다.

50구 중 스트라이크가 27개, 볼이 23개로 제구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구위에서는 확실히 돌아온 모습을 보였다. 직구(34구)와 슬라이더(9구), 커브(7구) 등 구종을 고루 점검하며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 구속은 144km를 찍었다.

이의리는 1회초 선두타자 김현준에게 우측간 2루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 김동진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공민규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고, 이창용에게 좌전안타를 내주며 1사만루 위기에 몰린 뒤 양우현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이의리의 영점은 선제 실점 후 본격적으로 잡혔다. 김재성의 땅볼을 직접 잡아 홈 송구하며 아웃 카운트를 늘렸고, 김재혁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끝냈다.

이의리는 2회초 2사 후 위기를 맞았으나 스스로 해결했다. 주한울을 땅볼, 김호진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뒤 김현준과 김동진에 연속 안타를 내줘 2사 1·2루 위기를 맞았으나 공민규를 유격수 플라이



KIA타이거즈 이의리가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시즌 5차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로 처리하며 실점하지 않았다.

2회까지 투구 수가 50구에 이르면서 이의리는 3회초 시작과 함께 최지용과 교체되며 부상 후 첫 실전 등판을 다소 이르게 마쳤다. 대신 곧바로 볼펜으로 이동해 20구를 추가로 투구했다.

이의리는 등판 직후 “날씨가 너무 더워 생각보다 힘들었다. 투구 내용이 좋지는 않았다”며 “밸런스는 좋았는데 오랜만에 등판이어서 너무 강약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 같다. 오히려 세게 던질 때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복기했다.

또 “슬라이더가 조금 안 좋았는데 커브가 낮게 잘 들어갔다. 불안한 느낌도 없다”며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다들 체력적으로 지칠 때다. 팀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부담이긴 하지만 저도 빨리 1군에 올라가서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태국협회와 우호 협정 정관 위배
권한 남용… 스포츠공정위 징계
홍 “효력 정지 가져분 신청할 것”
협회 상대 스포츠윤리센터 제소

대한체육회로부터 단체 운영과 관련한 권한 남용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가 최종 결정된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겸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 징계 효력 정지 가져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21일 배드민턴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제3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홍 부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앞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11월 제4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홍 부회장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홍 부회장이 반발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재심의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부회장은 지난해 5월 광주시배드민턴협회와 태국배드민턴협회의 우호 협정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국제 단체와 독점적 교섭 지위가 있는 상위 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양해 및 승인 없이 협정을 맺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태국배드민턴협회장의 오인 및 착오를 이용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제 교류 업무를 방해했다”며 “광주시배드민턴협회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협정안을 허락 없이



홍성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겸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오른쪽)이 지난해 5월 태국을 방문, 꾸닝파타마 태국배드민턴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배드민턴협회 제공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결정서를 통해 “관계자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으로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태국배드민턴협회의 MOU 체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참조 메일을 통해 수신했으며 해당 권한으로 얻은 정보를 남용해 본인의 소속 단체 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서 권한 남용 중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근거로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회장은 22일 전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태국배드민턴협회는 국제기구로 볼 수 없다”며 “아시아배드민턴연맹과 세계배드민턴연맹이 국제기구”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는 태국배드민턴협회장과 7년 이상 개인 교류를 바탕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져분 신청을 준비 중이고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권남용으로 문제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재심 청구 기간 징계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사회 참석 불가 통보 공문을 보내는 등 이사회 활동을 중지시켰다는 게 홍 부회장의 주장이다.

최동환 기자